

군산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추진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공동
시, 업무협약...내달 용역 발주
사업비 550억 민간투자 활용

전해의 비경을 자랑하는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군산시는 지난 24일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케이블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강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케이블카 사업은 고군산군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카 사업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시행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중앙부처 협의 등

? 고군산군도
군산시 옥도면 총 63개의 크고 작은 섬(유인도 16개, 무인도 47개)이 모여 있는 군도로 지난 2017년 12월 새만금 방조제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총 8.77km의 연결도로(신시-무녀-선유-장자도)가 개통돼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시민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공동 시행자로 기초용역을 통해 시·중점 및 노선계획, 시민참여 및 사업법인 설립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시민참여와 인허가 등 행정을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법인 설립, 관련 용역 등을 맡는다.
노선은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5~4.8km이고, 사업비는 550억원 가량될 것으로 추산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7월 기초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와 공공기업이 사업을 공동 시행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군산시 제공>

으로 추진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7월 기초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와 공공기업이 사업을 공동 시행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

펀드 등을 통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시민에게 최대한 환원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시의회,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경영안정 돕는다

정읍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시는 유류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

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수막과 전광판 자막 표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2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약 8000부의 전단지 배포했으며 신대인·연자·샘고을 시장, 소상공인연합회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어린 꽃게 102만마리 방류

어업인 등 50여명 참석...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 기대

고창군은 서해안 꽃게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꽃게’ 102만마리를 방류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이번 방류는 상하면 구시포와 해리면 동호해역에 어선 2척과 어촌계장 등 어업인 5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어린꽃게는 민간 종자생산업체에서 전갑폭 1cm 내외로 성장시킨 것으로 전문기관 및 질병검사를 모두 통과한 우량 종자다.
내년 봄이면 상품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어업인 주요 어업소득에 기여하게 된다.
군은 꽃게를 방류한 해역에선 1개월 이

상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또 어린 꽃게가 자랄 수 있도록 포획금지기간을 정해 수산자원을 늘릴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매년 꽃게종자 방류로 어획량이 2017년 270t에서 2018년 300t으로 크게 증대돼 어민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연안 어장에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넙치, 조피볼락, 꽃게 등 지역 어장환경에 적합한 수산종자를 매년 방류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악취모니터링요원 합동 악취배출사업장 감시활동 강화

익산시가 시민들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링요원과 합동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악취모니터링요원과 함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야간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악취모니터링요원은 산단 주변을 순찰하고 1·2산단 사업장 2곳을 방문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배출구에서 악취포집에 나선다.
악취포집에 대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악취모니터링요원과 함께 지난 12일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를 포집했다.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매월 2회, 1·2산단 사업장과 악취취취지역에 대한 점검·순찰을 실시해 하절기 악취 차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 공고를 통해 감시·예방·제보의 임무를 띤 악취모니터링 요원 5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악취취취 시간대(05:00-08:00, 20:00-24:00) 중 1시간 가량을 시내권 주요지역을 순찰하고 ‘익산악취24(odor.iksan.go.kr)’ 시스템에 접속해 일지를 작성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전국 유일 교정시설 없는 남원시

시 ‘정책자문위’, 국가 공공시설 유치 중점 제기

남원시만 유일하게 전국 검찰·법원의 지청·지원 소재지 중 교정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국가 공공시설 유치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변호사, 행정가 등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차별받는 국가 공공기관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 유치를 주문했다.
현재 검찰·법원의 지청·지원 소재지에 교정시설이 없는 곳은 전국 4개소다.
이중 강원 속초시와 경남 거창군은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남원시와 충북 영동군만 교정시설이 부재하다. 특히 남원은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교정시설이 없

다.
위원회는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상주 인력 200여명이 근무하는 등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 위원회는 지리산 국립공원본부의 유치도 주문했다. 지리산 국립공원본부는 전북·전남·경남사무소를 총괄 지원하고 기획·운영하고자 신설됐다.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본부는 경남사무소에 임시로 설치돼 있다. 위원회는 지리산의 지리적 여건과 지리산 권역에서 유일하게 남원만이 시단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원본부유치를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복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가 시와 같은 소도시에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 기자 bs8787@



순창군, 고추 고기능성 종자 개발 박차

국내 종자업체와 탄저병 강한 품종 연구 진행

순창군이 고추 종자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국내 종자업체인 (주)코레콘과 세계종묘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고추 종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재배가 쉽고 탄저병 같은 병충해에 강하면서 향당도를 비롯한 고기능성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순히 병충해에 강한 종자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능성 품종개발을 중점을 두는 한편 향당도를 비롯한 고기능성 고추 품종 등 순창군 지역 특화 품종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1층

내 토양검정실과 조직배양실을 새로 단장해 종자연구실을 구축하고 연구실에 박사급 연구진을 두고 종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앞으로 군은 종자 연구 관련 기반시설인 장류 종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고추 종자 연구에 매진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고추장의 본고장으로 유명하지만 그동안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고추 품종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공동 연구 및 장류 종자센터 설립으로 순창 장류를 차별화하고 지역 맞춤형 농업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